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어울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이룬 사람들이 행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크나큰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랑에 공헌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 금주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2월 22일 (토) 제 147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미국인 88%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

### 퓨포럼 · 뉴욕타임스, 다양해진 미국사회 ‘결혼과 가정’ 설문 결과 보도

지난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주제가 미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사회의 가족 구성과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 가족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얼마나 빨리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지에 놀라움을 표명할 정도다. 다시 말해서,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성이 커졌다. 흑인과 백인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무신론자가 침례교도와 결혼하며, 동성애자들 사이의 결혼도 증가했다.

동시에 이혼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교육받은 엘리트 계

층이 아니면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결혼, 이혼, 재혼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인구가 많다.

따라서 퓨포럼 리서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사실들(5 facts about love and marriage)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진보적 경향의 뉴욕타임스 역시 미국 가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merican households have never been more diverse, more surprising, more baffling).



미국내 가정들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 중심된 진정한 가정을 위한 가르침이 촉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이 결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700억 달러로, 이는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이나 커피, 치약이나 화장실 휴지에 쓰는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과거의 가족과 오늘날 가족 사이의 큰 차이는 인구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에 비해 오늘날 미국의 출산율은 절반 수준이다. 1964년 미국인구 중 18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36%였지만, 지난해 이 비율은 23.5%로 떨어졌고, 2050년에는 2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임아가 되는 여성의 수도 줄어들었다. 가임기 여성 중 임마의 비율은 80%로, 이는 1970년대의 90%에 비해 10%나 하락한 수치이다. 출산율이 줄어든 큰 이유는 바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중산층 커플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는 241,080달러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만큼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비율도 줄었다. 태어나는 아기의 41%가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에 비하면 네 배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90%는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성의 경우는 57%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임마의 비율은 1950년대 이후로 네 배가 증가했고, 여성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

을 담당하는 비율도 1960년대 11%에서 4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식도 변했다. 대중의 62%, 그리고 30세 이하 인구 중 72%는 이상적인 결혼을,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고 육아와 가사 일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율도 1996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다가 그 이후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현재는 초혼인 사람들 사이

에서 이혼율이 40%대이다. 특히 대학 학위를 가진 중산층이나 고소득 커플 사이의 이혼율 감소는 놀랍다. 이들의 이혼율은 33% 이하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자원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이는 엘리트 커플의 자녀와 다른 자녀들 사이의 간극을 늘리고 있다. 고학력의 임마들이 아이들의 성적과 일정 관리에 크게 관여하면서 대학 입시는 더 경쟁적으로 변했다.

퓨포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인들은 “사랑”이 결혼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2013년 실시한 설문에서, 미국인들 중 88%는 사랑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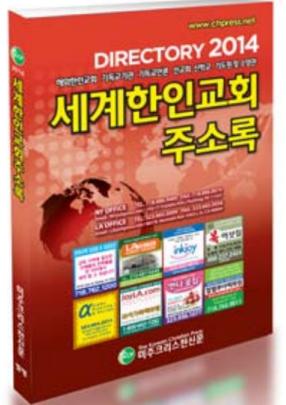
따라서 “평생을 같이할 배우자(81%)”나 “동반자(76%)”이기에 결혼한다는 이유는, 2, 3위로 응답됐다. 따라서 할머니 세대에서 흔히 들던 어른들의 충고, “가난한 사람 보다는 돈 많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사 고

###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 지역별 배부장소

#####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교서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교서점(NJ) (201)373-0029

#####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서점 (323)766-8793

##### ▶ 기타지역

커틀릿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2면

영혼의 스캐너가 있다면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간증수기 선교사 박수영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 2014년도 총회 강도사고시 응시 공고

2014년 10월에 시행될 '강도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과 영어 중 편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1)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 과정 졸업자 혹은 2014년 5월 이전에 졸업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  
2)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일정기간(1년 이상) 훈련을 받은 자

#### 2. 응시 서류

1) 고시청원서  
2) 이력서  
3) 신앙고백서  
4) 당회장 평가표  
5) 노회장 추천서  
6) 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학위기(해당자), 강도사 인허증(해당자)  
7) 가족사진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 5x7 Size)  
※ 총회 웹사이트(www.kosinusa.org)에서 [총회소식]-[총회행정자료]-[재미고신총회서식]

#### 3. 서류 제출

1) 모든 응시서류는 2014년 5월 24일(토) 까지 제출하여야 함. (단, 논문, 주해, 서면설교는 9월 30일까지 제출)  
2) 서류 제출처: 홍창우 목사 (Rev. Chang Woo Hong)  
1823 Sharpe Rd, Greensboro, NC 27406, USA  
TEL. (336)402-9658  
E-Mail: sepcphcw@gmail.com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할 것.  
4) 등기확인 우편(registered mail)은 받지 않음.

#### 4. 고시료

1) 고시료: \$300.00 (예비교육비 포함)

#### 5. 고시 과목

1) 강도사고시를 위한 학습훈련: 2014년 6월 중 예정, 장소는 추후 발표  
2) 필기고시: ①교회사(초대, 중세, 현대) ②조직신학 ③신약성경 ④구약성경 ⑤신약신학 ⑥구약신학 ⑦한국교회사 (이상 7과목)  
※ 미국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실시함  
3) 논술고시: 논문, 주해, 설교(서면, 실기)  
① 논문  
a. 논문제목: “개혁주의 성경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s)을 중심으로-  
b. 표지(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도서 순으로 작성  
c. 분량: Letter Size, 30Page (영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d. 참고서적은 10권 이상  
e. ‘논문 작성법’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함  
② 주해  
a. 시편 16:1~11  
b. 분량: Letter Size 20Page (영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③ 설교  
a. 갈라디아서 2:20  
b. 30분 분량의 설교를 원고(Full manuscript)로 제출  
c. 동일 본문으로 5분 설교 실기시험

#### 4) 면접고시

① 논문과 주해에 대한 질의  
② 경건생활, 가정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사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5) 면접장소: 제30회 총회 장소

※ 한국고신에서 2013년 10월 이전 강도사인허를 받은 자는 위 과목 중 필기고시 면제

#### 6.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3:00 예정  
2) 장소: 2014년 총회 소집 장소  
3)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www.kosinusa.org)를 참고할 것

#### 7. 합격자 발표

1) 2014년 총회 시  
2) 합격자는 총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함.

#### 8. 기타사항

모든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합격처리되며, 조건부 합격은 없음

#### 9. 고시 문의처

1) 총회 고시부 부장 이유량 목사 (Rev. Yu Ryang Lee)  
811 Linden Ave, Ridgefield, NJ 07657  
Tel: (201)969-0909, (201)463-2774

2) 총회 고시부 서기 홍창우 목사 (Rev. Chang Woo Hong)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전 성 철 목사

고시부 부장 이유 량 목사

고시부 서기 홍 창 우 목사



# 시론

## “패스터를 원합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장은 제약회사인 화이저였다고 발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순위는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들로 정해지는데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의 문화와 처우와 성장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한 직장이라고 해도 연봉이 5만에서 8만불 정도이니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그런 일터에서 만족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 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료에 의하면 행복한 직장의 공통점은 원만한 소통과 자신이 배려받는다는 안정감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일터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 가장 행복한 일터로 뽑힌 제약회사 로슈 덴마크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직장은 제니퍼 소프트웨어는 작은 IT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사장의 경영철학 역시 사람중심이었다. 복지의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기업문화가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대하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섬겨주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다. 그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비난과 가장 심한 중상모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학벌이 약했고 촌사람처럼 굴었기에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를 염시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그가 너무나 겸손했기에 주변의 참모들조차 그를 대통령으로 존경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 역할을 조금이나마 수행하는 사람 정도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링컨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 “모든 영광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언제나 약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고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언제나 높였다. 미드 장군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꾸물대다가 남부의 리 장군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드 장군의 문책을 주장하자 자신이 군의 총사령관임을 자임하였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큰 감동을 주었다는가 하면, 그랜트 장군이 빅스버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는 “이번 승리는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이 옳았고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을 정도이다. 링컨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했고, 그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생각으로 충성을 아끼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링컨의 리더십에 들어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에 열거한 회사들의 리더십도, 링컨의 리더십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10:45).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려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결국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높여주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리더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

요즘 대심방 기간이다. 세상이 바뀌어 심방에 대해 시큰둥하는 교인들도 있어서 작년은 하지 않았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시행하고 있다. 가정이나 일터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심방을 하면서 심방이야말로 목회사역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 주 새로 등록한 어떤 분의 가계로 심방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찾아준 것이 십년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프리처(Preacher)보다는 패스터(Pastor)를 원합니다.” 심방을 돌아오면서 곰곰이 그 말을 되씹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목회자, 삶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회자,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목회자, 돌아보니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존경받는 분들의 모습이 대개 이런 절박한 분들이었다. 어디 교인들뿐이랴! 교회밖 일을 하다보니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도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동역하는 리더, 섬기는 리더,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모든 사람들은 참된 리더, 섬기는 리더를 찾는다!

# “영혼의 스캐너가 있다면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온전한 예배상 구현을 위한 제안(1)

전세계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널드(Gordon MacDonald) 목사는 크리스치니티투데이에서 발간하는 “리더십 저널”의 메인 기고자로, 자신의 크나큰 성공과 쓰디 쓴 실패를 모두 경험한 그의 오랜 체험에서 나온 진국 같은 조언들로 항상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영감을 제시해준다.

40년 이상 목회한 결과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목회현장에 적용시킨다. 강의나 세미나로 공향 이용이 많은 그가 공향 검색대에서 경험한 ‘스캐너’ 검색 역시 예배에 적용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준다(If I Had a Scanner, How would our worship services be different?).

공항 교통안전청(TSA) 직원이 소리친다. “신발, 겹옷, 스웨터 벗으세요. 호주머니에 있는 걸 전부 꺼내세요. 시계, 장신구, 벨트는 바구니에 담으세요. 화장품은 내용물이 보이게 투명비닐봉투에 넣어주세요. 85g이 넘는 액체나 젤은 반입이 안 됩니다. 가방에서 컴퓨터 전부 꺼내세요...” 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공손하게 말하는 법은 결코 없다. 더러운 바구니에 담긴 내 물건은 움직이는 벨트에 올라가 작은 구멍으로 사라진다. 나는 동그란 부스에 들어가 행복하듯 두 손을



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행인: “아녀자는 낯선 남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인: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상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녀는 몸만 굽히게 아니라 영혼까지 낮추었다. 예수님의 스캐너는 그녀의 작은 행동을 순식간에 포착한다. 그분은 걸음을 멈추신다! “누가 나를 만졌습니까?”  
 “누가 선생님을 만졌느냐고요?”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

## 형식적인 예배 멈추고 영혼 깊숙이 자신의 진짜 ‘모습’ 발견

## 리얼리티 예배...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설교, 기도할 수 있어

들고 내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캐너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확인이 끝나자 나는 물건과 가방을 쟁겨서 비행기 탑승구로 향한다.

스캐너가 내 몸을 훑는 동안 나는 상상력에 발동을 걸었다. 주일 아침 교회 정문에 교인들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스캐너를 설치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스캐너는 온화한 웃음, 종교적 용어, 피상적 몸짓을 꿰뚫고 우리가 보여주기 싫어하는 태도와 영적 상태를 투시할 것이다.

그런 스캐너가 있다면 교회는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영혼 깊숙이 내려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리얼리티 TV라고 들어보았는가? 리얼리티 예배를 상상해보라.

목사는 영혼의 스캐너로 확인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침 기도를 하기 전에 그는 보고서 한 장을 받는다. “오늘 출석 교인의 12%는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 18%는 교회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22%는 직장이나 학교의 중요한 일에 골몰하고 있다. 8%는 며칠을 기도하지 못했다. 4%는 상실감을 느끼고 눈물을 쏟기 일보 직전이다. 21%만

이 진심으로 예배할 뜻이 있다. 16%는 어제 다시 중독에 빠졌다. 9%는 생각이 복잡하고 내면을 종잡을 수 없어 스캐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걸 알면 목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할까? 설교는 또 어떻게 변할까?

그런 스캐너가 없으므로 나는 그런 스캐너가 없으므로 사람들의 진심을 믿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주일 아침, 교인들이 속속 교회로 모이는 동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내가 묻는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인 1: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더럽고 불결하게 살아서 내 영혼을 깨끗이 씻고 싶습니다. 뽕소에 빠진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깨끗이 목욕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야죠.”

교인 2: “그게 정말 궁금하세요? 나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는데 아내 때문에 왔습니다. 아내가 혼자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여섯 달 후 남성 조찬 모임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다. 사실이다. 그는 이제 교회에 다닐 필요가 생겼다).

교인 3(10대): “친구가 여기 다녀요. 2층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교인 4: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주 여기 오는 게 치료의 일부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나보다 높은 분 말이예요.”

성경에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 속에 그녀도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얼 수백에 없다. 어느 주일 아침, 그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었다. 누가 그녀에게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하자.

여인: “그분에게는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서 나는 사람도 상황도 변하죠. 내가 그

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이 이야기 안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곧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감수성, 직관력, 사랑,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그분의 ‘스캐너’는 잘 작동한다.

예수님이 발견음을 재촉하셨는지,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는지, 한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일을 더 좋아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자, 권력자, 선남선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희망을 품고 다가왔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3편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 유원정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 퓨포럼 · 뉴욕타임스, 다양해진 미국사회 '결혼과 가정' 설문 결과 보도

(1면에서 계속)

실제로, 28% 정도의 미국인들만이 결혼에서 "재정적 능력이나 안정"을 중시할 정도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결혼율은 1920년 이후로 최저치이다. 18세 이상의 성인 중 50.5%만이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이다. 22%는 아직 독신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19%는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사별을 통해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결혼을 연기하는 이와 같은 트렌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결혼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찾는 뒤 처하는 하나의 성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을 안정된 삶과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점점 더 결혼을 하는 연령대도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대신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 70%의 미국인들은 결혼이나



지기 시작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 전역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는 단연코 네바다 주가 압권을 보이고 있다. 연주되는 파이프 오르간 음악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으로 인구 1,000명 중 36.9쌍이 결혼을 했고(2011년 통계), 그 다음은 하와이, 알칸사스 그리고 테네시 주가 뒤따르고 있다. 반면에, 미 전역

국 가정의 모습을 오늘날 아시아계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이혼율은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아시아계 아이들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80%의 아시아계 아이들은 두 부모에 의해 길러지는데, 미국 평균이

## 아시아계 가정, 1950년대 미국 표준가정 모습...응집력 강해

동거로 일종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11%는 결혼이나 동거가 아닌데도, 즉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도,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네 번째로, 미국인들은 결혼을 점점 더 미루고 있다.

2013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초혼 연령은 남자인 경우 29세, 여자는 26.6세로 이 수치는 1956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다. 당시 남자는 22.5세, 여자는 20.1세로, 60-70년대에는 더디게 평균 연령이 높아졌지만 1970년대 말부터는 급격하게 높아

50 개주에서 가장 저조한 결혼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뉴저지 주로 인구 1,000명당 불과 4.8쌍만이 결혼을 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한 것도 변화하고 있는 미국 가족 구성의 특징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이민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때 대부분이 남미 이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민자 그룹은 아시아 이민자들이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는 46%나 증가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1950년대의 가장 표준적 미

63%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중산층 가정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편이다. 아시아계 이민자 중 51%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평균인 31%보다 훨씬 높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바로 이처럼 변화된 가정에 따른 효과적인 복음 증거와 공동체, 즉 가정 형성에 따른 적절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재정비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2면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멋진 축도다.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무슨 말씀을 듣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요약해보자. 그녀는 병이 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건강해졌다. 군중은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문득 궁금하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고 당기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을 실제로 만지는 사람은 드물 수도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물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목회 경험이 부족했던 시절 교인들의 사정에 밝지 못해 이 여인과 같은 교우에게 무심했던 때를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진다.

나는 정말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틀테면 내 목표, 내 설교 주제, 세상에 대한 내 느낌에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고집이 강했다. 그에 반해 교인들의 사정에는 어두웠다.

나에게 영혼의 스के너가 있었다면 교인들을 위한 설교와 기도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교인들을 실망시켰다. '공감'을 얻고자 나를 찾았다가 복음을 상품처럼 설명하는 말만 듣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을까?

하루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도 같은 한 사람의 빼아픈 꾸지람을 듣고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맥 목사님은 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물었지만 정작 대답을 들을 시간은 없으시죠. 목사님처럼 중요한 사람이 나처럼 하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150년 전 한 성공회 사회의 부고를 읽었다. "조문객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기도를 좋아했다. 그들 하나하나가 사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느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교인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했다면 이상할 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좋아했다? 조문객들은 주님을 만지고 싶지만 했던 여인과 비슷하다. 그럼 그 사제는 어떻게? 주님과 비슷하다.

(다음호에 계속)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 107편: 오늘도 그때 구리 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형성되는 근심을 잠잠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이 잠잠해 됩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살아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구리 뱀을 바라볼 때 치료함이 각자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사망의 생각들로 인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할 때에 치료를 받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 일로 인하여 더욱 불안함을 나누고 근심을 나누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 곳에 물을 부어 끼얹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걱정이 되는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대신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구원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혈통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구원하심이 그의 몸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변함없이 영으로 살아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을 바라볼 때 빛은 나에게 임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하는 일을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사망의 생각들을 쫓아내고 약화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영은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망의 생각의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처음에는 자기가

아서 사망의 생각을 하고 걱정하던 것이 나중에는 걱정이 나를 잡아끌고 다닙니다. 심하면 다른 것을 생각 할 수도 없이 그 생각에 빠져 하루 종일 평안함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의 사슬에 매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 주셨는가를 봅시다.

13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또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심이 사람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무덤만 바라보게 하는 무서운 매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사40:31)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의 생각에서 자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가 우연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여호와와 일로 찬송할지어다!"

인생에서 문제는 만나면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의 마음은 문제로 인하여 오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종이었을 때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유자가 되었으니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여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대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 축복이 흐르는 퀸즈장로교회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운데  
퀸즈장로교회를 부흥 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비전과 축복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온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일시** 주후 2014년 2월 23일 오후 5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생각의 거점

어릴 때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할머니보고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지없이 10분은 죽히 지나간다. 기도하라고하면 할머니는 식사기도인데도 우선 무릎부터 꿇으시고 온 손자 손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터 시작해

서 한참을 잘 진도 나가다가 있어 버리면 다시 손자 손녀 이름을 돌아가면서 또 시작한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 국물은 이미 다 식어있다. 그래서 맨 날 할머니만 기도를 시키느냐고 아버지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식사 한 끼를 받아놓고도 그토록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고 이

렇게 잘되게 하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생각할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해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속에는 주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일주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매일 매일 순간순간의 단위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위가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머리에 시계라도 달려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잘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힘써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되기 때문에 위엿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다가 오늘도

주님의 생수를 생각하고 주여! 저에게도 영의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생수를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모하는 가슴에 영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10년전에 화끈했던 체험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그것만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삶속에 오늘 받는 은혜, 뜨거운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10년이나 20년 뒤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오늘 내 하루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만이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장로님때 선택소가 가보면 정진했다. 전화가 될 사이 없이 오고 또 손님들이 오고 나가고 종업원이 히스패닉이라서 히스패닉 라디오소리도 시끄럽다. 그런데 그 교회 자기 구역식구들이 계속 들락 달락 한다. 와서는 그 복잡한 곳에서도 울면서 얘기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테

입 전달해주고가고 어떤 분은 배가고프다면서 밥도 먹고 간다. 그 속에서 장로님은 사람들의 옷만 찢어주는 세탁이 아니라 더러워진 사람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고, 사람들의 찢어진 옷만 꿰매 주고 싸매주는 alteration(수선)만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까지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alteration을 생각하면서 옷만 빨아주는 세탁소가 아니라 신령한 세탁소도 함께 운영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탁소가 장로님의 사역의 본부가 되어있다. 2천년 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안디옥이란 도시에서 1년 동안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They are Christians which means ma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생각이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 일주일단위가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

간 그 생각이 주님에게 연결이 되니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과연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생각이 육신적인 세상에만 붙잡혀 있지 않고 다만 하루에 몇 번 씩만이라도 영적인 것에도 연결되기를 바란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엿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는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They call us Christians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생각의 거점이 이 땅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저 하늘의 은혜, 신령한 위엿 것으로까지 넓혀질 때 비로소 그런 영광스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국교회 담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아! 멋있다' 느껴본 것이 언제입니까?

의 물과 어두운 밤이 뒤섞일 때 그 모습을 느긋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에서는 느리게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 달력을 보면 처음에 주일이 먼저 나오니다. 일요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주일을 먼저 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하는 것이예요.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세 동안 힘써 일했으니 하루 쉬자는 의미인 것이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쉬고 일하는 것이예요. 쉬는 것이 먼저고 일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달력에 주일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일요일 즉 주일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는

나서는 그것이 좋았더라라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그것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신 것이예요. 일종의 축하파티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쉬와 창조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것을 즐긴다는 의미인 것이예요. 피곤해서 하루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며 감격하는 것이 일 안식입니다.

각하며 그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장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도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7일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7일 안식을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예요.

참다운 안식이란? (창세기 2장 1-3절)

현대사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은 참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바쁘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빨리빨리입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한국인의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민 사회에서는 더 분주합니다. 삶의 여유도 없고 쉼도 없이 살아갑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베에로 쌍소란 사람이 "느리게 살아라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책 이름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연못

서 바쁜 세상에서 느리게 살라는 것이예요.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책에 나오는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바쁘게 사십니까? 아니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잠을 자면 안식이 됩니까? 하루 종일 방안에 앉아서 책 읽고 커피 마신다고 안식이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안식의 의미를 느껴며 누릴 수 있으

따라 안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그날이 안식일이고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날이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쉬는 일부터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고 맨 처음 한 일은 쉬는 일이었습니다.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지으신 일이 다하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다 이루니라" "지으신 일이 다 하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좋았더라'하는 말이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날그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참 안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좋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생

여러분, 정말 복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7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사역지로 인정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안에서 안식하며 행복하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복 있는 삶, 주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8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8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할렐루야! 총대 제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8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14년 5월 20일 (화) - 23일 (금) / 3박 4일 2. 장 소: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YYZ) 901 Dixon Rd, Toronto, Ontario M9W 1J5 CANADA ☎ 1-416-674-9400 3.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Table with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 2차, 3차), and prices for 2인1실, 1인1실, 부부, 원로/공로, 목사/부부.

- \*현직 선교사와 복미주교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 50% 할인해 드립니다. (참가비 \$ 190). 1)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하셔야 합니다.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공천부 모임은 20일(화)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노회장들은 하루 일찍 오시기 바람)

- 4. 등록 및 송금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반드시 US Money Order (은행발행)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일반 check도 가능함).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는 받지 않습니다. \* Payable to: KAPC \* 보낼 주소 : Rev. Yung Il Jang (강영일목사) PO Box 35073, 700 Burnhamthorpe Rd. E. Mississauga, ON L4Y 2X0 CANADA

- 5. 교통안내: 1) 총회정소인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이 Toronto Pearson 국제공항 (YYZ) 근처에 있으므로 총대들께서는 반드시 Toronto Pearson 국제공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을 이용하시면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셔틀버스: 2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 표시: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erminal 1 (제1청사): 정류장 (post) S5에서/ Terminal 3 (제3청사): 정류장 (post) C22에서 전화문의: 공항셔틀 ☎ 1-416-674-9400/ 김지연 목사 ☎ 416-999-7878 6. 접수: 1) 총회 첫날 (5월 20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2) 등록마감일 (4월 15일) 이후 신청서 호텔숙박은 총준위에서 보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3)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7. 기타: 1)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주차 (Parking)는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하루에 \$ 10입니다. 3) 총대분들과 사모님들을 위해 5월 21일 (수)에 나이아가라폭포 (The Niagara Falls) 관광을 준비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최기정 목사 (부총무) ☎ 1-647-215-7177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엄영민목사 서기 고백원목사 총준위 위원장 이상일목사 총준위 서기 신동철목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7전8기의 역승을 기대하자!(하)

플로리다 공립학교에 성경이 들어간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는 오렌지카운티,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들 안에 성경을 학생들이 자유로이 볼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로이 오고가는 것을 학교에서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9개의 공립학교에서만 먼저 성경을 자유로이 나눠줄 수 있으며, 어떤 학교들은 성경책을 공짜로 나눠주는 부스(booth)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성경을 가지고 갈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이번에는 버지니아에서도 신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첫 단계인 상원 쪽에서 통과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슬아슬하게 18대 20으로 통과했지만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SB236 법안은 앞으로 미국 전역에 매우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8대 20의 투표가 사실상은 당원들끼리 나눠진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즉 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학생들만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공화당 쪽은 본래 미국의 공립학교는 기도로 시작했으며 기도를 통해 학교의 폭력과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을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주지사가 사인을

주 법원, 결국은 작년 2013년에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한 판결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B1172(동성애자들에게 기독교상담 금지 법안) 통과 그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1년 민주당 상원의원인 Ted Liu에 의해 제출된 SB1172가 2012년 9월말 주지사 Jerry Brown에 의해 사인돼 통과되었습니다.

SB1172는 동성애자나 성정체성의 혼돈으로 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크리스천 상담과 치유상담들을 금지하는 매우 나쁜 법안입니다. 그동안은 크리스천 치유상담들을 통해 성정체성의 혼돈 속에 있

들은 절대로 기독교 상담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상담받기를 원해도 법에 의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상으로 오기 원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은 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사악한 법안들입니다. 정치인이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특별히 18세미만의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상담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 크리스천 상담을 받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상인으로 돌

### 미국의 회복 가능...공립학교에 성경과 기도, 신앙의 자유 허가해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생긴 이유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2013년 5월 2일 기도의 날(Day of Prayer)이 있던 날,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이라는 반기독교 그룹에서 작년 5월 기도의 날이 있던 날 "무신론자들의 성경에 대한 반론서"라는 책자를 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11군데의 학교에 자기들 맘대로 돌렸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성경을 학교에서 나눠주는 법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히 반대한 그룹 역시 이 FFRF 그룹이고, 미국 전역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오는 그룹도 바로 FFRF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ACLU와 같은 반기독교 그룹입니다.

버지니아, 신앙의 자유와 기도를 허락하는 법안 첫 단계 통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메사 외에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꼭 버지니아에서 통과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많은 영적 가치관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와 자유주의가 강한 동부 쪽 도시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근히 신앙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야할지 계속 넣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걸리게 된 것은 뉴욕의 한 지방의 타운홀 미팅 때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기도로 시작을 하곤 했는데 믿지 않는 두 여자들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기들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왜 기도를 "In Jesus Name" 기독교식으로 해야 하나? 마치 자기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며 타운홀 미팅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 지방법원에서

던 어린 청소년들,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SB1172에 의해 2012년 10월부터 18세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크리스천 상담이나 치유상담으로 그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의 SB1172가 통과되자마자 뉴저지가 이어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 이어 매사추세츠와 펜실베이니아도 2013년에 같은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14년에 들어서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모든 크리스천 형식의 크리스천적인 상담을 제한시켜버리는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가장 최근에 알링톤 카운티에 있는 민주당 의원인 Patrick Hope 이 HB 1135 라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 역시 동성애자들을 도와서 정상인이 되게 도와주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적인 도움을 완전히 제한시키며, 18살 이전의 청소년

아오는 동성애자들과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의 전략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의 정치적 힘을 키우고 거짓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의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도제목: 이미 이런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소송을 걸어 사악한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SB1172가 폐지되도록, 뉴저지에서도 폐지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재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기다리고 있는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이런 사악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7전8기는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에 함께 임할 때, 정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왜 신신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죽은 후의 영생을 믿지 않는지요? 그리고 별세한 영혼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요? 어떤 분이 어디서 성경공부를 하고 와서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 특히 병든 자녀 혹은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요?

-하버시티의 이희은

A: 전12:7은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는 사람의 별세 후에도 영이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눅16:22절에는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말

### 별세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행...귀신은 사탄의 종

씀하였습니다

욥19:26에서 욥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한 것은 죽어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뵈옵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육체를 떠나서 혹은 내 육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죽은 후에야"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도바울은 고후5:8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만족한 교제에 들어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자의 현재의 삶보다 완전한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 "엔데메오"라는 단어의 뜻은 외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거함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박형용 박사는 그의 책 "신학난제 선포"이란 책에서 현실세계를 중요시하며 인간의 도의적 생활을 기조로 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의 종교생활의 프로그램에 천당과 영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신신학자들은 그저 종교생활의 도덕률을 강조하며 신신학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지상에 있고 천당에 있지 않습니다. 신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타계적 성향을 비난하며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천당과 영생의 희망을 유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당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당과 영생을 미신적으로 생각하여 배격합니다. 진화론자들도 역시 천당과 영생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연속의 법칙을 믿는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급수적 기원이 영생의 신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으로 존속하든지(신자일 경우)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고(불신자인 경우) 지옥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정통교회의 신앙사상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 특히 흉악한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그릇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영혼은 사람에게 속하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별세한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눅8:26-30의 거라사 사람들의 사건을 들어 증거합니다. 거라사 사람에게 들린 귀신들이 저희의 이름을 "군대"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군대의 죽은 귀신'임을 가리킨다고 하나 그 이름을 군대라고 한 것은 '군대와 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는 말씀은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별세한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것이 잘못된 교훈인 이유는 첫째 뱀전3:19에 의하면 노아당시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음부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떠난 영혼은 음부에 갇혔기에 귀신이 되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 청빙위원장

#### 기타사항

- 1.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 2.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3.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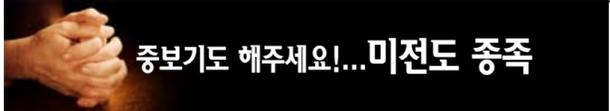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고산 부족(Hill Tribes)



미얀마는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인 위치와 또 독립심이 지나치게 강한 국민성 때문에 늘 고립돼왔다. 또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다수의 소수종족과 지배 종족인 미엔족(the Myen- 과거에는 버마인으로 불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자주 있어왔다. 그 가운데 고산 부족들은 주로 미얀마 국경 외곽지역을 따라 울창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지배계층인 미엔족은 이라와디(Irrawaddy) 강의 비옥한 평야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고산 부족들은 티벳-버마(Tibeto-

Burman) 계통에 속하는데, 주로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왔다. 미얀마에는 오랫동안 전쟁과 잦은 정부교체, 쿠데타가 있어왔다. 오늘날까지도 버마군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얻고자 투쟁하는 종족집단들을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버마군대는 소수 종족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을 약속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반란의 기미가 보이지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한 예로 1994년 5월, 산(Shan)주(州) 한 지역에서만 17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다.

삶의 모습

산지 부족들은 산족(Shan)과 버마족의 영향을 받아 이중언어 생활을 하는 종족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무역을 할 때에는 산(Shan)어

를 쓰지만 집에서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 부족어를 사용한다. 미얀마 산지부족들의 주요 직업은 쌀을 경작하는 것이다. 일부 부족들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산비탈에서 쌀을 재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이동경작"(shifting cultivation)을 하기도 한다. 쌀을 제외한 주요 재배작물로는 옥수수, 면화, 담배, 양귀비(아편)가 있다. 담배의 공급량은 이 지역의 애연가들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추산된 수치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아편의 50% 이상이 산(Shan)주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이 지역은 약령 높은 "황금의 삼각지"(Golden Triangle-히말라야산맥 남쪽 기슭)로부터 흐르는 메콩 강의 흐름을 따라 중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만나는 지점들 '상(上) 골드트라이앵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들 '하(下) 골드트라이앵글'이라고 함. 마약을 재배하는 '마약의 삼각지'로 알려져 있음-역사 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쌀이나 다른 작물

들 외에도 환금작물로서 과일을 많은 토지에서 재배한다. 또 "삼각지대"에는 상업적 이용가치를 지니는 철광석들도 찾아볼 수 있다. 북쪽에 사는 부족들은 계곡에서 고무와 호박을 캐서 서로 교환하기도 하며 마을 외곽의 밭에서 야채를 가꾸어 시장에 내다팔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종족들은 자기 부족 내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계곡과 평야지대에서 생활하는 다른 종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버마인들은 독립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소규모 종족 집단이 산족과 무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무역로에 군대를 배치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오면서, 부족들은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각자 영토에 대한 영구적 권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부 종족은 "사오파"(saohpa, 세습영주)가 화려한 자택에 살면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금징수에 분개했고, 결국 그들은 모든 세금이 자신들

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봉건" 항쟁을 후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평민들에게 있어 정부는 화재, 기근, 홍수, 전쟁과 더불어 5대 구적(舊敵) 중 하나다. 산지 부족 마을 대부분은 언덕배기나 높은 산마루, 산비탈 등 자연스럽게 강한 산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또 물줄기나 수원이 근접한 곳에 위치해있다. 주거생활은 땅에다 말뚝을 박아 3-4피트 높이에 세운 큰 집에서 대가족이 함께 산다. 어떤 집들은 길이가 100피트에 이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촌락들이 작은 공동체로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지부족 사회에서 족외혼-서로 다른 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친내혼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안의 남자계보를 따르는 부계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산지부족들은 불교신자들이다. 하지만 "나트"(nats)라고 하는 악령(惡靈)을 믿는 전통신앙도 유지하고 있다. 나트 신앙에 따르면 모든 나트는 본래가 악하지만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트를 달래기 위해 평생 애써야 한다. 나트가 기뻐하면 사람들은 추수기에 풍부한 수확과 건강을 얻게 되지만 나트를 노엽게 하면 큰 해를 당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 악령들은 자연을 다스릴 수도 있어서 홍수와 다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족들 가운데 더 고립된 부족들에게서 이러한 "나트"영에 대한 믿음은 더욱 두드러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히도 산지 부족 가운데 극소수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 불교는 5세기에 미얀마에 들어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타임지 "한국인 동성애 인식 변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동성애를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타임지는 11일 인터넷판에 실은 '한국의 LGBT(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평등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노력에 앞장서는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커플의 사례를 소개하며 동성애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변화 추이를 조명했다.

타임은 우선 한국을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지만 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만 해도 성적권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심지어 2000년대 들어서도 홍석천이 한국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다가 TV, 영화, 라디오 출연계약이 파기될 정도로 동성애가 금기시됐다는 것이다.

타임은 그러나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동성애는 용인돼야 한다'거나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7년 18%에서 지난해 6월 39%로 2배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며 드디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스프링클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언트신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동성애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동성애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항상 한국에서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 동성애자인 스프링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쓴 '누가 무지개 깃발을 쫓는가'의 저자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개신교

회에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타임지는 지난해 9월 거행된 김조광수 커플의 결혼식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인분을 투척한 사례가 말해주듯 한국 내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강력하고 자금력까지 갖춘 일부 기독교도들의 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과 북미에서 성공을 거둔 '동지'들로부터 영감을 얻으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소도시, 시청에 동성애 깃발

주민 가운데 40%가 동성애자로 알려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동성애 깃발' 논란이 한창이다. 11일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최근 시기(市旗)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문양을 넣기로 결정했다.



웨스트할리우드는 인구 3만5천여명 가운데 40%가 동성애자로 추정되며 시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동성애자이다. 이번 시의회 결정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동성애자 도시인 웨스트할리우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알리려 한다는 상당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원래 웨스트할리우드 시청사에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다. 지난해 6월 시의회 결정에 따라 '동성애자의 도시'를 알리는 무지개 깃발을 게양했지만 지난 1월 시의회는 돌연 무지개 깃발을 내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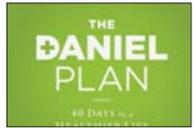
의원 4명이 동성애자인 시의회에서 "우리 도시가 동성애자만의 도시는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이 먹힌 결과였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견디지 못한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무지개 깃발을 다시 시청사 건물에 나누끼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시 깃발에 무지개 문양을 넣기로 결정했다.

시장 직무 대행 존 다미코는 "시 청사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하는 것보다 시청에 무지개 문양을 넣는 게 더 낫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릭 워렌 목사, 웬 요리책 시리즈?

미국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의 담임 리 워렌 목사가 다이어트 관련 서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1일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워렌 목사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을 알려주는 요리책을 오는 18일 출간한다. 다니엘 아덴, 마크 하이먼 등 미국의 저명한 의사들이 참여한 요리책에는 100가지가 넘는 조리법이 담겼다.



워렌 목사는 "책에는 변형되지 않으면서 입맛에 맞는 전통 조리법이 실려있다"며 "우리는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요리책은 워렌 목사가 지난해 12월 펴낸 건강서적 '다니엘의 계획: 건강한 삶을 위한 40일'의 후속작에 가깝다. 그는 건강을 위해 교인 1만5000명과 함께 2011년 한 해 동안 다이어트를 해 모두 20만 파운드(약 113t)를 뺐다. 워렌 목사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다니엘의 계획'을 출간했다. 책 이름은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시종으로 일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등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따왔다.

이 책은 식이요법과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기도 등 실천적 체중감량 방법을 제시했으며 발간 직후 뉴욕 타임스 자기계발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그는 "2010년 침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봤다"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2002년에 펴낸 신앙서적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월로크리교회, 장애아 성추행 기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월로크리교회가 장애아동 성추행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월로크리교회는 교회 안에서 장애아동이 성추행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2명의 피해 아동 가족에 의해 각각 기소됐다.



전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피해 아동 A의 부모는 "월로크리교회의 '스페셜 프렌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8세 아동 A가 자원봉사자 로버트 소브착(20)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월로크리교회가 장애아동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 '스페셜 프렌즈' 자원봉사자로 일한 소브착은 작년 2월 프로그램 진행 도중 A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브착은 작년 12월 성폭력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는 이 사실을 즉시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소브착이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작년 5월 월로크리교회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내 자녀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을 당부했다. 그 결과 또 다른 장애아동 B가 소브착으로부터 장기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B의 부모는 "아들이 9세 때인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약 1년동안 소브착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브착은 '스페셜 프렌즈' 프로그램을 통해 B의 부모가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B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관리자가 자리를 뜬 틈을 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 부모는 작년 11월 소브착과 월로크리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전 딜레이 월로크리 대변인은 "스페셜 프렌즈 프로그램은 성인 2명의 감독하에 진행되도록 돼있으나 소브착이 이를 위반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스테플을 재고육하고 감시 카메라를 증설했다"고 말했다.

YWAM DTS / Dominican Republic 2014 COMMUNITY DEVELOPMENT DTS



CD DTS



세상은 크리스찬을 볼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CD DTS는 성경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의 강의와 2개월의 아웃리치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로 살며 주님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DT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TS 목적

- Gather & Challenge (모으고, 도전하게 하는것) Inspire & Develop (고취하고 개발하게 하는것) Shapen (연마 시키는 것) Prepare (준비 시키는 것) Impart (전하는 것)

훈련 기간

강 의: 2014년 4월3일~6월26일 전도여행: 6월27일~8월21일

신청 및 연락처

www.uofnvillamella.com

Lecture Fee : \$2,500(USD) room/board

(Dominican, Haitian Student) \$1,000

Outreach Fee: \$1,000+Airfare

YWAM CD DTS

1516 Betancourt St. Bella Visa, Santo Domingo, D.R.

TEL: 213-247-9116

E-mail: davidpark1781@gmail.com / evergracekim@gmail.com

연락: 허승호 선교사 / 박 남수 장로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0)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 하나님 중심의 학문

카이퍼는 어쩌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전력투구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인데, 그 교육정책의 입안자인 정부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수를 임명해버리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진보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 치면서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은연중에 그러한 세계관으로 물들여질 수밖에

에 없다. 카이퍼는 오랜 교육투쟁 끝에 그 결과로 1880년에 뿌라야 대학, 곧 자유대학교를 세우게 된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노동, 학교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미래의 신칼빈주의 지도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자유대학교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채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카이퍼는 그의 총장 취임 연설인 “

영역주권사상”(Sovereiniteit in eigen kring)을 발표 하면서 다양한 사회구조와 또 학문이 그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는 학교 교육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지지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해서 외쳤다. 카이퍼의 자유대학교 설립은 참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세우려고 시도한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진 셈이다. 결국 카이퍼에 의해서 세워진 개혁교회, 대학교, 정당, 학교, 교육협회, 신문사들이 모두 카이퍼의 칼빈주의의 세계관의 터 위에 기초를 잡은 것이다. 카이퍼는 학문도 하나님을 위한 학문이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으로 학문도

자의 의무임을 느끼게 한다. 학문의 한 분야 즉 신학은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목적으로 하여 그 영역을 잘 개척해 나갈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문으로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학문이 아무리 완전하고 박식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거나 그분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라 죄악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큰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학구적 탐구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 앞에서 학문적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어쩌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한 생애를 바친 이유를 짐작 했으리라고 본다. 결국 영역주권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칼빈주의적 세계관 건설이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국가관과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철저히 합리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끌고 가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세월의 입법 투쟁과 정치적 영항 그리고 논리적 대결에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말하자면 카이퍼는 이론적인 칼빈주의자일 뿐 아니라 행동하는 칼빈주의자였다. 그래서 카이퍼는 국가지상주의자들이

### “학문적으로 하나님 영광위해 노력 않는 과학자는 첫 하나님 계명 위반” “하나님 주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므로 교육정책 중요” 역설

는 국가의 권력에서,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자 했다. 자유대학교의 목적

자유대학교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채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카이퍼는 그의 총장 취임 연설인 “

중립이 아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인간의 학문 역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

과학자는 크게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는 위의 글에서 카이퍼가

갖고 있는 교육정책을 바꾸어 교육도 학문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가정사역 칼럼



### 젓먹이와 어린아이의 찬미와 기도의 능력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갓 태어나 얼마 안된 젓먹이나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이를 보면 우리는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느낌과 함께 돌봐 줘야 하는 수고를 떠올리며 귀찮아하거나 하찮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의 영적인 힘, 특히 기도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하고 무척이나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성인들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어린이나 젓먹이라고 할

지라도 귀여운 그 이상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와 젓먹이들의 온전한 찬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또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우리 가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고 싶다. 젓을 먹일 때 내가 찬송을 드리면 아~ 하며 음정과 박자가 고르지 않지만 아기들이 눈을 똑바로 주시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했다. 또 내 등에 업히거나 안겨서도 내가 찬송을 드릴 때 자신들도 흥얼흥얼 찬송을 따

라 했다. 성경에서는 “주는 어린 아이와 젓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8:2에 말씀하셨다. 젓먹이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곧 사단)이 잠잠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젓먹이로 찬양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말하며... 아~~~~ 하고 소리 내든지 여러 악기들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표현하도록 유도해보라.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원망과 비판이 없어지며 하나

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족이 될 것이다. 또 어린아이가 드린 기도응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부부는 1984-1989년 필리핀에서 신학을 하면서 또한 캠퍼스 개척 사역을 돕는 선교사로서 지냈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필리핀에서 낳았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도모임을 함께 할만한 한국인들이 그 동네에 많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함께 무더운 날씨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란 말씀을 믿고 젓먹이인 막내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제목은 노드에 작성했고 아이에게 젓먹이며 작성한 것을 읽으며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몇년 후 노트에 적혀있던 기도들이 모두 응답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젓먹이와 합심 기도한 응답의 결과였다. 그 후 막내 아이가 약 세 살쯤 되었을 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막 귀국한 우리 가정은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에 자가용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곳저곳을 걸어서 데리고 다녔더니 힘들었던 모양이다. 막내아이가 엄마 “뽕뽕(차를 그렇게 불렀다) 필요해, 뽕뽕”이라고 노래를 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가용이 생기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 막내 진심야. 내가 기도해라”라고 부탁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1달이 지나지 않아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함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했었고,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필요하면 언제든 막내가 도맡아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차를 공급해주셨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 그대로 믿는다. 그만큼 순수해서 꼬마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어려서 성경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도응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젠가 남미의 어린이들의 중보기도 팀에 대해 책을 읽은 것이 기억난다. 7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기도훈련을 시키고 어린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여기

서 말씀전파와 예언과 치유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 또 다른 일은 1995년 한국에서 GCOWE(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라는 세계적인 선교대회와 리더십모임을 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대회기간 동안 어른들도 24시간 기도실을 운영했고 또 어린이들도 다른 방에서 중보기도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어린이들도 충분히 24시간 기도를 해낼 수 있고 또 성령의 은혜도 충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영적인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맞는 영적인 훈련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며 어린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겠다.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골2:28)고 했고,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마 21:16)라고 하셨으니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야겠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76. 창조론의 기초(26) 생체 모방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물(自然物)'이란 단어다. 이 스스로 있는 물건이란 뜻의 '자연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이 만든 '인공물(人工物)'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물건을 저절로 생긴 '자연물'이라고 하게 되었을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손을 보

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시스템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생체 모방(biomimicry or biomimetics)이란 단어가 여기서 생겨났다.

**꿀벌**  
꿀벌은 내려앉을 때 결코 사고를 내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꿀벌이 3단계의 착륙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첫 번째 단

작륙 단계가 매우 섬세해야만 한다. 이런 단계들은 비행기가 더 사뿐히 내려앉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꿀벌의 집은 6각형이다. 이 모양은 가장 적은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가장 견고한 구조이다. 공학자들은 이런 6각기둥구조를 가벼울 뿐 아니라 견고해야 하는 항공기는 물론 자동차, 컴퓨터, 건축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곡물시장으로 유명한 시카고의 대형 곡물창고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여 건설하였다고 한다.

**경린 물고기**  
아프리카 민물고기 한 종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단단한 비늘(경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늘이 샌드위치처럼 여러 겹(층)으로 되어 있다. 맨 아래 겹은 얇고 평평한 뼈로 되어있고, 그 위층은 스펀지 뼈로 되어있고, 그 위층은 이빨의 상아질처럼 단단한 광물질인 코스민(cosmine)으로 되어있고, 맨 위층은 광택 나는 에나멜(enamel)로 덮여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서 분비되어 나온다. 연구에 의하면 여러 겹의 장점은 각개 비늘의 강도를 더 해줄 뿐 아니라 각 겹들이 서로 서로 미세하게 연결되어있어 비

다 350배 더 민감하다는 의미다. 이 도마뱀은 어두운 곳에서도 색깔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흐릿해 진 상을 교정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세로 방향의 색수차(longitudinal chromatic aberration)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인데 겉코 도마뱀은 이것을 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겉코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연구하면 야간에 사용하는 카메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뇌**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려는 연구원들은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의 컴퓨터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어 두 부품은 '버스'라 불리는 통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대개는 그 버스의 크기가 정보 흐름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것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뇌의 메모리와 프로세서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는 처리 속도뿐 아니라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

## '자연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창조물', 인공물과 비교 안돼 이미 있는 시스템 관찰 분석 적용하는 '생체 모방'이 효과적

자. 손은 놀라움 그 자체다. 손가락의 배열과 길이, 근육 대신 힘줄로 연결되어 섬세한 조절이 가능한 손가락을 가진 손은 뼈들이 모여 가장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무려 58가지의 동작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전광석화처럼 컴퓨터 패스워드를 찍어 넣을 때는 보고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부스끼기 쉬운 포테이토칩을 엄지와 중지로 쥐고 강한 힘이 들어가는 망치질도 할 수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손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공학자들이 인공 손을 만들어오고 있지만 내 손 같은 인공 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무리다. 우리의 손은 다른 영장류 동물들의 손과 닮아 있지만 사실은 무척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의 대리자답게 특별히 디자인 된 손을 가지고 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증거가 없어도 나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

**자연 따라 하기**  
인공물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을 저절로 존재하게 된 자연물이라고 믿는 진화론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다.

제는 내려앉을 면에서 정확히 16mm 위에서 거의 정지할 때까지 속도를 줄인다. 두 번째 단계는 내려앉을 면의 경사를 예측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착륙면에 가까이에 있는 발로 표면을 붙잡는 데 평면인 경우는 뒷다리를 사용하고 천정처럼 경사진 곳에서는 앞다리로 표면을 붙잡고 착륙을 한다. 꽃의 부드러운 수술 같은 표면은 흔들리기 때문에

늘이 벗겨져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과학자들이 물고기의 빠로 된 비늘을 연구하여 더 강하고 가벼운 방호복을 디자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겉코 도마뱀의 눈**  
겉코(Gecko) 도마뱀들 중에는 사람이 흑백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약한 빛에서도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 눈보

다. 사람의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신경세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다른 뉴런들과 수조 개의 접촉점(시냅스)들을 갖고 있다. 각 뉴런은 엄청난 수의 정보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어 이것들이 컴퓨터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정보 처리 능력의 총합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의 시냅스(접촉점) 수는 수천 개의 은하에 들어있는 별들의 수와 비교될 만큼 많다고 한다. 그 수는 자그마치 450조 개다. 단 한 사람의 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훌륭하게 디자인되어있는 것이다.  
진화론적인 철학은 앞에 소개한 기발한, 경이감을 느낄 생물학적 특성들이 무지하고, 무정하고, 목적도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생명체들의 놀라운 특성들은 우리의 지혜롭고, 자애롭고, 전능한 창조자의 공학적인 디자인임이 분명하다. 자연이 이런 종류의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각 부분은 각각의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총은나우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할머니 육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

4. 일하는 엄마, 태고부터 영향을 주는 할머니 효과

제가 있던 일입니다. 큰 아이가 9살, 둘째가 5살 되던 해 제 나이 36살 되던 해였지요. 갑자기 제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때 아닌 여드름으로 피부와 약을 1주일 이상이나 먹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몸의 징조가 좀 이상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당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정신 없이 바쁘게 일하며 살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뜻밖이었지요. 자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했으니 선물이든 선물인데 문제는 36살의 나이든 엄마, 더구나 독한 약을 많이 먹고 있던 엄마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니다.

피부와 의사는 내게 처방해준 여드름 약의 후유증으로 비타민A 증후군을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장애를 줄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권한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께 속한 것이기에 믿음으로 받기로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할머니였지요.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할머니의 위로와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주는 할머니의 마음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니다.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태속의 새 생명과 친밀함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 주신 나의 셋째 아이에게 나는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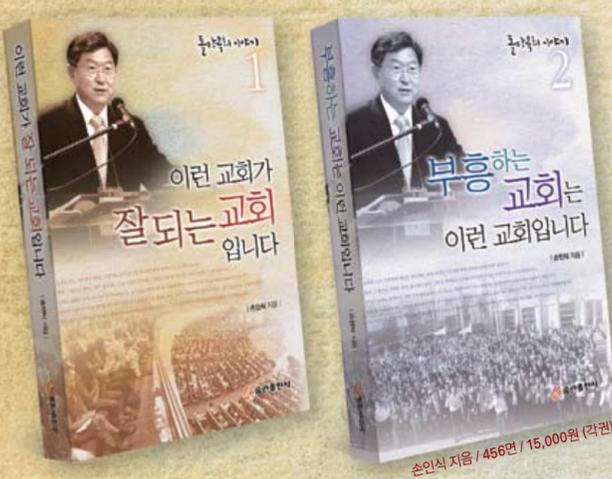
태 안의 아이에게 엄마가 먹는 어떤 약도 우리 아가의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있게 아가에게 말해주면서 배 안의 아이에게 3번 놀러주고 17번을 손바닥을 쳐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아가와 내가 날마다 나누는 태교로서 3월 17일 날 세상에 나오라는 암시를 아가에게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이 아가가 드디어 3월 17일에 나온 것입니다. 엄마가 가르친 태교대로 정확하게 그날 아주 건강한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니다. 발가락도, 손가락도 눈, 코, 입 모두가 예쁘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하는 엄마의 임신은 다른 엄마보다도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때 옆에서 경험 있는 할머니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니다. 독한 약을 먹은 엄마의 갈등도 옆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임신기간 동안의 산모의 영양상태나 정서적인 상태, 또한 산후를 준비하기까지 신생아를 위한 물품을 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늘 함께 하는 도움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효과 그것은 일하는 엄마의 임신 순간부터 작동되고 있었습니니다.

목적 위해 적절하게 디자인 되어있고 배치되어 있다. 진화론에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단 한 가지의 이론이나 실질적인 단계들도 제시된 적이 없다. 진화론은 철학에 그려지는 멋진 그림이 아무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목적도 없는 백묵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믿음이다.  
진화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 무서울 정도로 기발한 피조물 뒤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간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앨버민에서 들려오는 통령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희배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돌봄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승욱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서우 최훈, 손자 가람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랑'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덜 돌아온 탕자들이 돌랑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랑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 리차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7)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2) 내적 변화의 방법: 영적 형성 포스터의 내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주제로 풀어나가는 그의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점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담, 에녹, 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사귄 사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품을 책임지고 새롭게 형성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창조이래, 심지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도 언제나 이

동을 지속해야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확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정확히 구분된다. 이들 중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 형성'의 주된 사명이다. 이 대화는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친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그러나 그 대화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티투데이에 기고한 '그리스도와 같이 됨'(Becoming Like Christ)라는 글을 살펴보자. 그는 이곳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평생토록 지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고(form), 일치되고(confirm), 변형되는(transform)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삶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있다. 성령은 교사, 안내자,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도

고 있다. 이제 '영성 개발(영적 형성)'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졌다. 제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28:20) 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결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automatic)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영적 형성'은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훈련

## “영적 형성”은 그리스도가 지녔던 습관의 반복적 모방 행위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공식적 방법’ 통해 성취

러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지금도 구약의 인물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간의 부족 때문에 현재 오로지 소수만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 레노바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 시대에도 구약의 인물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영적 형성을 매우 심각한 신앙훈련으로 다루고 있다.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일치(一致)를 추구하는 성품과 정체성을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적 형성에 대하여 레노바레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communion)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임재하시는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영성 개발(영적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친밀하고 개인적인 의사소

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게 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 자체이다.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려는 소수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 형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성품으로 새롭게 형성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포스터는 현대인들이 '영적 형성'을 통하여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Christlikeness)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레노바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사역의 최종목적에 둬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 훈련시키는 것을 영적 형성의 궁극적 사명으로 삼는다. 성경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 신앙의 본질이며 그가 반드시 성도의 삶 중심에 계시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포스터가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이와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포스터가 1996년에 크리스치니

들은 '공식적 방법'인 기도, 학습, 금식, 고독, 단순, 고백, 기쁨 등의 훈련을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적 형성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레노바레가 말하는 '영적 형성'은 그리스도가 지녔던 습관을 반복적인 모방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터는 이러한 '공식적 방법'에 근거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열정적이고 바쁜 정보에 입각한 행동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닮은 습관과 성향(Christlike habits and disposition)을 성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새로운 거룩한 습성을 지니기 위하여 반드시 영성 형성이 요구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내적 성품이 개발되어 자신이 타고난 습성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레노바레 성경이 유도하는 목상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

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 중에 포스터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상 훈련'이다. 그는 인간의 내면세계는 매우 영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상 훈련'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터는 "영적훈련과 성장"에서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목상을 말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목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상은 우리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은 목상이 종교 전문가들(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제사장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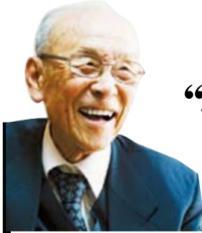
### 한국내외 교회, 테러피해성도들 돕기·기도

성지순례 중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국내외 교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은 18일 교단 소속 8400개 교회 담임목회자에게 '진천중앙교회를 돕기 위한

5가지 기도제목'과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총회 대의원 1500명에게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검문소의 폭탄 테러 피해자들과 본 교단 교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를 요청했다. 예장 통합 임원들과 이홍정 사무총장은 19일 진천중앙교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피해자 가족, 교회 성도들을 돌볼 예정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등 세계교회 연합기구와 미국장로교회(PCUSA), 스코틀랜드장로교회 등 34개 동역교단에 폭탄 테러의 야만성을 규탄하고 중동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서를 보내고 기도를 요청한다. 이스라엘의 한인 크리스천들도 협력과 지원에 나섰다. 이스라엘 한인회장이 예장 통합 이강근 선교사는 항공편 확보와 통역 등을 맡고 있다. 기독교 교민들은 후원금과 도시락을 준비했다.



# 방지일 칼럼 (28) “본대로 들은 대로”

어느 날에 사는가

우리에게는 날이 있다. 어제도 날이요 내일도 있다. 어제에 사는가 오늘 사는가 내일 사는가 나이 들면서는 어제에 사는 이가 많다. 어제 잘한 일들을 상기한다. 어제 과거에 좋았던 날이 기억된다. 지난 역사를 오늘에 살려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기쁨지게 할 수 있음은 역사를 바로 이용함이었다. 그러나 어제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자량을 삼는다면 그는 그 이상 진전 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 삶이 어제에 매여서 놓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빌3:13) 역사를 버리라 무시하라 함이 아니라 오늘이 더 중요함을 말한다. 과거의 자랑만 일삼는다면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는 일로 앞으로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어제 일은 오늘을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게 하여 만족할 것이다. 오늘을 지름지게 하는 어제가 되어 만족할 것이다. 어제의 잘한 것 어제의 잘못이 오늘의 현세력이 되게 함이다. 태양의 현 세력이 썩음에 잠세력으로 축적되었다가 내가 먹음으로 산화되어 내게 현 세력으로 나타남을 보니 내 모든 과거는 잠세력으로 숨겨 배터리에 속해 전기가 충전되듯 이를 사용할 때 빛으로 열로 힘으로 나타나는 전력을 배터리로 이용함은 우리에게 좋은 실례가 된다. 이런 과거가 내게 이용이 되어질 때 오늘의 내가 빛나며 열을 내며 힘을 내어 동력의 역사가 되어진다. 오늘을 위한 어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위한 어제가 아니된다면 그는 과거에 살고 말 뿐이다. 오늘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이 없이 과거에만 사는 것은 실로 무의미 함이다. 어제로 오늘의 복을 돌으며 거름으로 이용하여 오늘의 꽃이 신선도 있게 피워 거기 부응한 열매를 맺어 만족한 것이다.

이 반면에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는 없다. 내일 염려로 오늘을 허송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오늘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임이라 할 것이다. 학생생활에 있어 시험 기일을 당하면 그날 그날의 학업을 다하지 않다가 막상 응시할 때 급급하여 다음 학기에는 시험공부만 하지 않도록 결심함이 흔하다. 그 결심이 그때 되면 또 지나가 버리고 만다. 다음 보자는 사람 두렵지 않다는 속담도 있다. 내일 내일 하는 습관을 오늘을 망치는 유혹이다. 오늘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오늘의 삶에 지장을 주는 일은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 오늘 삶이 충실할 때 내일의 삶이 윤택해진다. 오늘은 내일의 어제인지라 오늘의 삶의 충실은 내일의 삶을 기쁨지게 함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삶이 지지부진하다면 내일의 삶은 그보다 더 빈곤해질 것이라. 어찌 오늘 삶의 오손을 내일을 위한다고 소홀히 할 것이겠는가.

나는 어느 날에 사는가 어제에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에 사는가 어제에 살아도 안되고 내일 살아도 안된다. 오늘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영원자존자이시다. 영원한 현재이시다. "나는 있다"로 되어있다. 과거가 아니요 현재일 뿐이다. 오늘이 지금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내 할 일은 오늘에 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수1:2) 지금 가라시이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4:23)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넌도 지금이요 내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함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도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라"(요5:25) 지금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그 음성을 들기를 원하노라"(시95:7)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14:13)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구원하신다.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신다. 나는 오늘에 사는가? <1999년, 2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 **Bangkok, Thailand** ●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 **Korea** ●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신학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 동부교계 게시판



## 백기현 교수 찬양간증 및 부흥회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백기현 교수가 오는 6월 20일부터 미주 순회 집회를 시작한다. 일정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LA에 머물게 되며, 7월 5일 뉴저지에 도착해 14일까지 동부에 머물게 된다. 15일 유럽으로 출발해 20일까지 머문다. 백기현 교수는 2005년 2월 4일, 주님의 은혜로 55년 곁사들을 치유 받고 그 은혜와 기쁨으로 국내외에서 1,600여회의 간증집회를 해왔다. 백 교수는 일정에 따른 지역교회 혹은 연합집회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5402-0324. 이메일: khbaik3@hanmail.net

## 최명자 사모 뉴욕집회

한국복음성가를 대표하는 최명자 사모의 뉴욕집회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벚찬 감동으로 지친 이민생활에 힐링찬양을 선사한다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일(수): 뉴욕할렐루야교회(담임 한기술 목사) △21일(금): 라이프라인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 △23일(주):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휘 목사) △26일(수): 퀸즈중앙감리교회(담임 이종범 목사).

▲문의: (646)258-4161, 943-1007

## '눈오는 지도' 운동주 추모공연

운동주 시를 노래하는 "눈오는 지도(Snowing Map)" 밴드가 운동주 서거 69주기를 맞아 추모공연을 갖는다. 일시는 2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 뉴저지 파인플라자 208호. 눈오는 지도의 노래와 함께 전 충남대 인문학강사 김성희 씨의 "동심으로 눈물짓기" 운동주 강연도 함께 열린다. 동 밴드는 2007년 62주기를 시작으로 매년 추모공연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운동주의 시 14개에 곡을 붙인 CD를 발매한 바 있다.

▲문의: (201)35-8692

## 박상훈 목사 초청 영적대각성집회

락크랜드장로교회(담임 김성민 목사)가 서울 승동교회 담임 박상훈 목사를 초청해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는다. 일시는 3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로 금, 토 저녁 8시, 토 새벽 5시30분, 주일 오전 11시 오후 4시.

▲문의: (845)267-4114, (646)651-3186

#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의를 행하라”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8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8회 총동문회(회장 김지희 목사)의 밤이 지난 17일 저녁 플러싱 노리노리 식당에서 열렸다. 제 24회기를 맞은 동 신학교는 1987년 9월 설립돼 현재까지 4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예배는 회장 김지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정기태 목사의 기도와 이경님 전도사의 성경봉독, 재학생들의 찬양에 이어 장영춘 목사가 설교했다.

장 목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딤후6:11-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교는 미주 한인신학교 중에서 한국의 총신과 마찬가지로 큰 신학교”라며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본문을 인용, “사역자들이 분쟁과 교만, 거짓증거, 돈 사랑, 거짓말 등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을 행하라”며 “결정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원리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8회 총동문회의 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조했다.

이어 불헌기도 이원호 목사, 축사 이재덕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전 임회장 손한권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후원금 전달, 신학교소개 김혜천 목사, 광고 이종태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혜천 목사(5회)는 “동부개혁신학교가 하나님에 주신 비전과 강령적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된 일꾼들을 양육하고자 시작됐다”며 “특히 세속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등 진리가 희

미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철저한 성경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사역자를 무장시키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기도로 동역하라”

## 퀸즈장로교회 캄보디아 박수영 선교사 파송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6일 저녁예배에서 파송예배를 드렸다. 캄보디아 씨엔립에 있는 베델교회 및 베델유치원 선교사로 파송 받은 박수영 전도사는 이미 지난 2013년 6월부터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관련기가 16면).



퀸즈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예배에서 김성국 목사(오른쪽)와 장영춘 목사가 박 선교사에게 파송기도하고 있다.

예배는 장봉석 장로 사회로 기도 김성권 집사, 성경봉독 김성룡 집사,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내가 너를 보내어”(출3: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는 생후 3개월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40년 왕궁에서 사역한 후 40년 광야에서 40년 성품훈련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며, “우상이 넘치는 씨엔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수영 선교사를 보내셨다. 박 선교사가 홀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송패 전달 및 파송기도, 장영춘 원로목사의 격려사, 특별찬양 소유영 집사, 답사 박수영 선교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장영춘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보내지 않으면 못한다. 구령사업은 목회자, 신학교 교수,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뛰는 선교사는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며 “씨엔립은 하나님의 선택해주신 선교지로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물가로 선교의 최적지”라고 말하고 “박수영 선교사는 기도하며 지혜롭게 성실하게 선교사의 자질을 가졌다. 교인들은 매일 기도하며 선교의 동역자가 되라.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답사에 앞서 선교지 소개 동영상과 박수영 선교사의 사역소개가 있었다.

이날 파송예배는 전도부 시상식을 가진 후 장영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뉴욕리폼드신학교 2014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 2014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16일 저녁 본교에서 열렸다. 예배는 유상열 학장 인도로 기도 도국진 학생, 설교 조국환 교수, 봉헌기도 및 축도 최호익 교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국환 목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딤후2: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한국 뉴스를 보니 유명 목회자들이 경제사범으로 재판 받는 모습들을 보며 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독교가 이런 일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학기를 시작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서 말한 것으로 첫째 말씀은 구, 둘째 부끄러울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셋째 자신을 모두 드리는 전적 헌신”이라며 “성경말씀을 통한 철저한 지적훈련을 쌓고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야 하며,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을 본받는 겸손한 자세로 헌신 봉사 섬김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신학교는 이번 학사 일정에 앞서 18일 조국환 목사를 강사로 특강(창조과학)을 하고 24일부터 정식 수업에 들어간다. 이번 학기 과목은 인간론(유상열 목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최호익 목사), 설교학(이윤석 목사), 목회상담III(유원정 교수)가 강의된다.

(기사제공: 뉴욕리폼드신학교)



뉴욕리폼드신학교 2014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퍼스펙티브스 뉴욕 집중훈련 첫날 한철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 “많은 선교사 아닌 좋은 선교사 보내야”

## 퍼스펙티브스 뉴욕 집중훈련과정 성료

퍼스펙티브스 뉴욕 집중훈련 과정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렸다. 30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열린 훈련과정에서는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파트너스 대표), 김병선 선교사(GP 국제대표), 손창남 선교사(OMF 동원대표), 김혜택 목

사(GAP, GYKIM 대표), 김요한 선교사(SEED USA 부대표) 등이 강사로 섰다.

첫날 오후부터 진행된 첫 강의는 한철호 선교사가 맡았다. 한 선교사는 “선교사를 많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선교의 이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선교사가 과연 좋은 선교사인가를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년 한국선교가 몇만명을 낳았다고 보낸다는 구호성 캐치프레이즈만으로는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퍼스펙티브스 훈련도 훈련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선교의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⑦ E-mail Add.	_____@_____
⑧ Web Add.	http://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 한국-미주 교회에배음악의 현주소와 미래

## WMU 제3회 예배음악심포 강사 이기선, 정유성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는 개교 25주년 기념 제3회 예배음악 심포지엄을 '오늘날 한국과 미주한인 교회 예배음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3일(목) 오후 7시30분 본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선 이기선 교수(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는 "찬양은 어떤 뜻을 입던지 찬양가 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드

리는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며 그로인해 치유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음악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음악이며, 교회의,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음악, 즉 교회 중심의 음악이고, 교회의 사명에 따라 예배, 교육, 복음 선포, 교제, 봉사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늘날 찬양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찬양팀의 비중이 커졌다. 음악도 클래식적 요소보

다 대중음악을 비롯한 현대음악적 요소가 많이 도입됐다. 예배역시 전통예배보다는 열린 예배가 보편화됐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러나 담임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이 예배와 예배음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본질이 상실된 예배로 흐르게 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교회 예배음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정유성 목사(베델한인교회)는 "현대예배를 이해하려면 2014년

현재 미주한인교회의 예배현장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미주한인들의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지켜야 하며 어떠한 것과 타협해서도 안되는 전제하에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균형 있는 음악사용을 위해 첫째 담임목회자의 인식변화와 수용 폭 확장, 둘째 교회 리더십 그룹의 지원과 동참, 셋째 예배음악 전문가의 발굴과 지원, 넷째 예배음악 담당자들의 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섯째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사역의 효과적인 동역"을 이야기했다.

(박준호 기자)



WMU 제3회 예배음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기선 총신대학교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와 정유성 베델한인교회 목사(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발제자로 나서 강연했다.



은혜세계선교교회 이전 및 예성 미주총회 가입 예배가 교단관계자 및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반석위에 세운 교회되라'

### 은혜세계선교교회 이전감사 및 예성 가입예배

은혜세계선교교회(담임 이바울 목사) 이전감사 및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가입예배가 11일 오후 6시에 드려졌다.

이윤수 목사(미주성결대 동문회장, 감찰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태영 목사(미주서부지방회 부회장)가 대표기도를, 헤세드글로벌 에셀선교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었으며, 장인관 목사(미주서부지방회 회장)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마16:15-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한오 목사(예성미주총회 증경총회장)가 권면의 말씀을,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특송을 불렀으며, 김바울 목사(나성베들레헤장로교회 담임)가 축사를, 정동철 집사(미주한인재단 LA 회장)가 환영사를,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USA 회장)와 이병만 장로(기독교실업인협회 증경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조승훈 목사(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했으며 이영호 장로(한국성결대학교 전이사장 및 교수)의 격려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예성미주총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만찬이 있었으며, 만찬 후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월례회가 열렸다.

은혜세계선교교회는 '말과 오메가-복음의 시작과 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믿음과 영생, 성령강림과 치유-능력과 회복, 세계선교와 평화-하나님나라 확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졌으며, 예수그리스도를 품고 기도와 찬양으로 회원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사역하고 있다. 교회주소는 1722 Crenshaw Blvd이며 전화는 (213)284-6520.

(박준호 기자)



새누리 침례교회 말씀 큰 잔치에서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관행적 신앙생활 버리고 행동하는 신앙 가져라'

### 새누리침례교회 '말씀큰잔치' 강사 손인식 목사

새누리침례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손인식 목사(KCC 대표간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새누리 말씀 큰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4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 첫날 집회는 손인식 목사가 '종교의 겉질'(삼상17:48-4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손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목이 붙고, 관습에 젖어, 관행적으로 신앙생활 하다보면 순수성을 상실하고 야성을 잃어 신앙은 없어지고 종교라는 겉질만 남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를 직면하고, 극

복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역설하며 큰 도전을 주었다.

15일(토) 아침집회는 '아! 내 주여!'(왕하6:15), 저녁집회는 '당신은 자유합니까?'(요8:32-34), 그리고 16일 1부와 2부 예배 때 '수치와 긍지'(롬1:15-17), '세상을 뒤집는 힘'(행16:31-34)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한편 손인식 목사는 토요일 오전 9시30분 본 교회 호프체플에서 열린 재지훈련에서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회게 게시판

### 어린이전도협회 교사 무료 전도 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연 목사)는 2월 25일(화)부터 5주間に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사들과 부모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Good New Club 전도 훈련과 전도 강습회를 실시한다. 장소는 어린이전도협회 강의실, 이번 강습회는 찬양과 율동, 개인 전도법, 성경 교안 작성 및 교수법, 요절 암송법, 효과적인 구원 상담, 기도훈련 등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등록비는 없으며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213)382-1544

### 남가주교협, OC교협 주최 제2회 목회자 세미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영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주관하는 제2회 목회자 세미나가 '이웃사랑-구제 사역'이라는 주제로 25일(화)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강사는 진유철 목사와 이준 목사이며 참석대상은 목회자, 사도, 신학생, 구제지역 평신도 사역자이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교통수첩 시간도 마련되었다.

▲문의: (213)381-1190 여운영 목사

### LA사랑의교회 2014 신약성경 말씀사경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2014 신약성경 말씀사경회를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오후 7시에 이메일 사모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집회 기간 중 자녀들을 위한 Childcare와 간단한 간식이나 매일 준비된다. 회비는 20달러이며 주주자는 4929 Wilshire Blvd.(윌셔와 하이랜드 코너)에 하면 된다.

▲ 문의: (425)293-4422 장명규 목사

## 김영우 방송인 방송50주년 기념행사 및 은퇴식

### USC 한국학도서관에 방송기기 전달식도

김영우씨 방송 50주년 기념행사 및 은퇴식이 지난 12일 USC 도해니 메모리얼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USC 한국학도서관에 비디오 편집기, 음악 녹음기 등의 방송기기 전달식도 있었다.

김영우씨는 "방송인생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담은 영상을 USC에 기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이 민역사를 잘 모르는 한인 차세대들이 한인사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SC 한국전통문화도서관의 김정현 관장은 "USC 한국학 박물관은 LA 한인들의 발의로 1980년대에 세워져 다수의 한국 역사 및 문화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한인사회를 이끌어온 분들의 육성자료와 DVD를 기증받게 돼서 더욱 기쁘다"며 김영우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방송인 김영우씨는 1961년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 1기생으로 출발, 지난 50년 동안 라디오, TV 방송,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로 활동해왔다. 미국에 유학 온 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말 방송을 시작한 최초의 방송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3년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어 전 연방노동부 여성국장 전신애, 도산 안창호의 장녀 안수산 여사, 초기 이민사회 의사 김창하 박사 등 한인인민사를 생생한 음성과 영상으로 제작했다.

김영우씨의 기증품들은 USC 한국학 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방송인협회 김진수 회장(왼쪽)이 김영우씨에게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b>남가주든든교회</b> <b>남가주리더교회</b> <b>남가주사망교회</b> <b>대흥장로교회</b> <b>동문교회</b> <b>중앙선교회</b> <b>다마스포라선교회</b>	<b>감사한인교회</b> <b>나성순복음교회</b> <b>나성영락교회</b> <b>나성제일교회</b> <b>나침반교회</b>	<b>드림교회</b> <b>미주중앙교회</b> <b>미주평안교회</b> <b>빛과 소망의 교회</b> <b>베델한인교회</b> <b>복음장로교회</b> <b>브리스리교회</b>	<b>삼성장로교회</b> <b>새찬양교회</b> <b>새생명선교회</b> <b>세계소망교회</b> <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b>안디옥장로교회</b> <b>얼바인침례교회</b>	<b>요셉선교회</b> <b>윌셔크리스천교회</b> <b>은혜한인교회</b> <b>주님의영광교회</b> <b>코너스톤 교회</b> <b>토렌스조은교회</b>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	--	---	---



목회서신

견방증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2001년 9월 1일자 '택시신문'은 런던시민들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택시에 두

고 내린 물건에 대한 통계를 실었습니다. 휴대전화 6만2000대, 노트북 2900대,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

기 1300대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분실물 중에는 다이아몬드와 현금이 가득 든

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왕세자의 장남 윌리엄 왕자의 경호원도 왕실 관계자들의 전화번호와 각종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단말기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딸까지 그냥 두고 내린 승객이 있어서 '택시에 두고 내린 딸을 찾아 가세요'라고 광고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런던시민들의 견방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여겨집니다.

런던시민만 그렇겠습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느라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들입니다. 건강증은 기억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심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다가 실제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건강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후, 그 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열두 제자를 모아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돌린 후, 예수님을 기념하면

서 기록한 만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의 의미를 늘 명심하고 살도록 권고하신 것입니다.

혹시 꼭 기억해야 할 일인데 잊고 지낸 것은 없습니까?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할 분들, 용서할 이들, 격려할 이들...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는 감사하세요. 용서해야 할 이들은 용서하세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세요.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과 삶 속에는 희열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 얻기를”

‘로봇다리 세진 군과 장한 어머니’ 간증집회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BM 대표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가 주최한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간증집회 ‘로봇다리 세진 군과 장한 어머니 이야기’가 15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로봇다리 김세진 군과 장한어머니 이야기 간증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나승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정영희 목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김세진 형제와 그를 키운 어머니 양정숙 여사의 간증으로 진행됐다.

양정숙 여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미주한인들도 사회적 약자였다. 그러나 한인들이 힘을 뭉쳤기에 작은 눈이 뭉쳐져서 눈덩이처럼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약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됐다. 마찬가지로 싱글맘들

에 대한 사랑 관심도 눈덩이가 뭉쳐져 만들어진 눈사람처럼 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진 형제는 “어린나이지만 많은 분들 앞에 이야기한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16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 얻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선수인 김세진 형제는 두 다리와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없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국 세계선수권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휩쓴 명실상부한 수영계의 대들보로 우뚝 섰다. 현재 수영훈련 차 미션비이 후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각종 수영대회 및 브라질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OC한인라이온스클럽 무료건강검진 성황

나침반교회에서 검사, 건강세미나, 상담 등 진행

오렌지카운티 한인 라이온스클럽(회장 추교훈)이 주최한 무료건강검진 행사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건강검진에는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 APLC팀과 UCLA APA 헬스케어팀의 의사 및 간호사, 자원

봉사자들이 나와 당뇨, 콜레스테롤, B형 및 C형 간염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비롯해 혈압, 체지방 검사를 했다. 또한 '간암과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상식과 예방', '암 예방 및 치료, 투병'을 주제로 건강세미나도 함께 열렸으며, 또 내과, 수술, 암 치료 등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담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방위웅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체류신분,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한인에게 열려있다”며 “특히 보험이 없는, 또 보험이 있어도 이런 검진에 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 비자문제로 체류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OC한인라이온스클럽은 지난해에 처음 무료건강검진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본 클럽은 무료건강검진 행사를 연중행사로 마련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독/자/투/고

김광은 박사 (김광은 척추병원 원장)

일본인의 반성

10년전 83세 유대인 친구가 치료받기 위해 저의 의료원을 찾아왔다 그 노인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허리를 다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독일 정부가 유대인에 대한 참회의 보상으로 매년 2300달러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독일의 대통령이 유대인 강제수용소였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과거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속죄의 뜻을 표시하면서 밖에

비가 와서 땅이 젖은 흙 위에 무릎 꿇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일본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라들을 약탈하고 위안부들을 끌어가 일본군의 사기를 키우면서 만행을 저질렀던 악질적 행위를 뉘우치고 불쌍한 여인들에게 보상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에 대한 속죄의 뜻을 표한다는 것은 보상 문제가 따르온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일본은 미국의 도움으

로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 항복한 전쟁 패전국이다. 미국이 의회에서 위안부 보상을 통과하였으면 일본은 무조건 미국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미국에 세워도 아무소리 할 수 없듯이 일본도 위안부 기념동상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정기모임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출마 영김 집사 간증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린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정기모임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OC한인 라이온스 클럽이 주최한 무료건강검진 행사가 나침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유응연 목사) 정기모임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토렌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유응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대표기도 이태환 목사, 성경봉독 김사무엘 목사, 설교 박성규 목사(‘영광 받으실 이름으로’, 마6:9-10), 헌금기도 이극봉 목사, 특별 중보기도 인도 이동준 목사, 축도 이기홍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친교시간에는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 김 집사의 신앙 간증 시간을 가졌으며, 유응연 목사의 인도로 김 집사의 당선을 기원하는 합심기도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는 오는 3월 3일(월) 오전 10시 제 65회 총회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갖게 된다. 또 3월 13일(목) 오전 11시에는 미주평안교회(담임 목사 임승진)에서, 27일(목)에는 임마누엘선교회(담임 류종길 목사)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714)774-6197 서기 조영재 목사 (정리: 박준호 기자)

말씀 부흥 대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아침)부터 3월 6일(목, 저녁)까지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213) 382-145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흥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초청 부흥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저녁 7:30 22일(토) 새벽 5:30 저녁 7:30 23일(주일) 1부 8:00 2부 10:00

| 장소: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목사) 1601. Art St. Bakersfield, CA 93312

| 문의: (661) 589-5791





선교 펴기

온두라스

지난 1월 27일에는 온두라스 후안 올란도 헤르난데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당정치를 하던 온두라스가 이번에는 4개당으로 재편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대통령이라 힘있게 온두라스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빈부격차, 물가상승, 실업률, 치안 등)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 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문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할 수 있고, 그 소통의 정도에 따라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인식은 그들의 존재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는 말씀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교사 문화(한국, 미국 문화)를 벗은 후, 선교지 문화의 옷을 입히는 소중한 일들이 바로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지 문화에 정통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벗은 복음에 온두라스 렌카 인디언 문화를 입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상황화 라고 하는데 이에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에게는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국땅에 사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넘는 것이 희생입니다. 수년 산속에 살면서 동네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

습니다. 한 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SEAN "작은 목자의 삶"(La Vida de Cristo): 목회자 훈련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아자꾸알과 지역에서는 (Vincente, Antonio, Blanca, Olvin, Dionicio, Dario, Danelia, Jolanda)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몬테네그레 지역은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15명의 목회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목회자 신학교육: 목회자 및 장래 지도자들(Antonio, Olvin, Dario, Dionicio, Blanca)이 지난 1월 23-25일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시구아테페케에 위치한 MEDA(Ministerios Evangélicos de las Américas) 신학교에서 야코보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2월 20-22일 두 번째 강의(딤후4-6장)으로 목회자의 자격)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현재 렌카 마을을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3. SEAN 프로그램 (www.seaninternational.org): 온두라스 교회에 소개하는 사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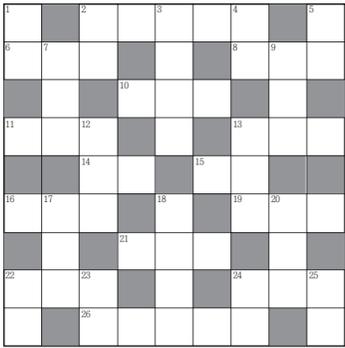
SEAN 프로그램은 칠레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70개의 언어로 100여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현재 본부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4. 강해설교학교(El Escuela de la predicación expositiva): 2월 2-4일 수도 테구시갈파를 방문하여 복음주의교회협의회 사무총장 Jorge Machado 목사님과 온두라스 선교사협의회 대표 Juan Mattica, 그리고 변호사 Jorge Meza를 만나서 강해설교학교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남미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미주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이메일(segjunjang@gmail.com)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중을 사용하셔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역을 잠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비타교회 건축(캐나다 한

사랑교회 후원) 및 방문: 건기 철이 되어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차가 다닐 수 없어서 다른 지역인 산타바라에서 건축 자재들을 구입하여(1월 20일) 크루시타까지 차로(2월 3일), 세이비타까지는 말이나 노새(2월 4-5일) 옮겼습니다. 기초공사가 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3월 초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헌당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뿌에블로비에호교회 건축: 뿌에블로비에호교회(시카고 이성길 목사님 가정)가 3월부터 건축이 시작 됩니다. 5월에 헌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학교 등록 및 수업 준비: 겨자씨학교가 2월 8일부터 개강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온두라스 문교부 지침으로 학교가 매일 오후 3시에 마치고 되므로 겨자씨학교는 토요일에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자꾸알과 학교 등록이 저조합니다. 많은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프엔테데루즈 학교: 산페드로 슬라 학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

다. 갠단이 거주하는 리베라 에르난데스 지역에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메트로폴리탄)에 어려움이 많습니.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롱교회 목사관 건축: 셀롱교회 목사관(시카고 베들레헤교회 이상규 목사님 후원) 건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플라드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윤경모 선교사님, 김호석 태권도사범 부부 방문: 1월 14-16일 오셔서 렌카교회와 세이비타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윤 선교사님은 온두라스에서 공동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언어훈련과 사역의 시적이 순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단기선교: 2014년 단기선교의 일정들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팀들이 오시기를 위해서 바빠질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군 선교사 segyunjang@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28)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2.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 꿈과 다니엘과 유관(단1:18).
6. 예수의 동생(막6:3).
8. 유다산중에 있는 성읍(사20:19).
10. 베나민지와 벨라의 아들(민26:40).
11. 아라비아인으로 아라비아인인 유대를 반역하려함을 증언한 사람(삼6:6).
13. 놀라는 병(신28:28).
14. 학술,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담후1:11).
15. 천지와 동서고급의 모든 공간과 시간(행17:24).
16. 배만 팽팽 붓고 내부는 비어있는 창증의 하나(눅14:2).
19. 자기가 먹거나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함(고전9:7).
21. 큰 임금. 하나님(미4:13).
22. 군사무기를 쌓아 둔 창고(왕하20:13).
24. 시므앗의 아들로 요아스 왕을 죽인 자 중의 한 사람(왕하12:21).
26. 바사왕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들(느13:6).

<세로 푸는 열쇠>

- 1. 밤낮(살전3:10).
2. 바벨론 포로 시에 이방여자를 취한 자의 조상(삼10:43).
3. 신생아(벧전2:2).
4. 악독한 기운(행9:1).
5.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삼2:24).
7. 바사국의 초대 왕(삼1:8).
9. 속지하는 사건의 장소로 인용되고 있다(사28:21).
12.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레8:26).
13. 일정한 거리를 빨리 달리기 하는 자(전9:11).
17.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18. 루디아의 직업(행16:14).
20. 그돌리오벨의 침략 때 고모라 왕(창14:2).
22. 군인의 집단(단3:20).
23. 부모가 없는 아이(시109:9).
24. 예수의 조상(눅3:26).
25. 목이 마른 듯이 간곡하게 바램(사42:2).

십자말 정답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February 2014. Includes church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 Churches listed include: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에벤에셀선교교회, 주비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린즈장로교회, 린즈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덴버한인장로교회, 동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럿장로교회, 새시온침례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엘파소열린교회, 영생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큰무리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타코마새생명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템피파조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하와이 지역,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3)

## “차세대 교육목의 방향 재설정”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찬칼리지 교수)

오늘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차세대 교육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원칙들(차세대 교육은 차세대에 의해서, 차세대 교육은 독립적이어야, 차세대 교육목회는 1세대 목회와 상호 유기적이어야)를 실행할 수 있는 제반 기반들을 담보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원칙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담은 차세대 교육 사역의 “원칙”이라 하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는 차세대 교육 목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현실화를 앞당기는, 혹은 무리 없는 건강한 사역의 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담보의 개념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의 모든 원칙들이 한낱 공허한 이상이 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 그 원칙들에 대한 제반기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제반 기반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들로 표현될 수 있겠으나 실상 이는 “의식과 자원” 이 두 가지로 관통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례를 들어 차세대 교육목회의 기반들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차세대 목회자들의 배출” 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차세대들 스스로 차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의식 또한 바뀌어야 하겠으며, 그들의 의지를 꺾는 열악한 지원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식의 변화와 자원의 풍성함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준비가 개별교회에서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들을 생각하며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민만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의식의 부분은 자원의 부분에 비해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원이란 경제적, 물질적 부분과 관계된 것이므로, 어떻게 해도 법 고화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비단 차세대 교육목회의 현실화에만 연관된 이슈가 아닙니다. 또한 한인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의 문제요 나아가 전 인류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원이 없는 쪽과 풍성한 쪽은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전 인류

## 3가지 제반 기반들 담보해주는 것에서 출발 범한인 지역교회적 기금 형성 및 교육 공유

구축하는 것이 또한 원칙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차세대 교육 목회는 개개의 교회들이 차세대 목회자의 배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인 차세대 교육의 구축을 위한 제반 기반들을 미리 다 갖춘 후에 그 교육 목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이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전체 한인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차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연합된 행보를 함께 내딛고 일구어나가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즉 이는 차세대 교육목회는 이를 위한 준비들을 범 한인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개별교회가 완성된 준비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차세대 교육의 원칙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제반 기반들을 전체 한인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비하면서 일구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차세대 교육목회의 제반 기반들을 담보하는 일은 개별교회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전체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 더욱 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모두의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목회를 공고히 함으로서 우리 전체 한인교회와 그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체계적인 범 한인교회적 움직임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교육목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 세대와 차세대들의 의식이 한마음으로 잘 잡혀 나가야 하며 또한 망설이는 의식들을 추동하고 실제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기 위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 한인교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은 차세대 교육목회의 제반 기반들을 전체 한인교회가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 의식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일은 항상 그렇듯이 지속적인 교육과 공유와 공론화 및 담론화의 과정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교육목회를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또한 그 시작을 내딛은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교육목회에 임해 온 자신들의 철학과 경험을 전체 한인교회와 나누며, 성공적인 부분들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들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사역들에 매진하기도 빠듯할 터이나 자신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한인교회를 함께 생각하며 그와 연루된 우리의 모두의 차세대

적 이슈를 다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교육목회가 보다 범 한인교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들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어 차세대 교육목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다각도의 고민과 연구를 통해 이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자원의 부재가 큰 걸림돌인 작은 교회들 있다면, 가까운 지역들안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차세대 교육목회를 일구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교육 목회자들을 위한 간단치 않은 후원이나, 차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범 한인교회적 기금을 형성하는 일 또한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조리 의식의 측면에서나 자원의 측면에서나 자교회 차세대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의 차세대들을 바라보고 그 교육 및 목회를 위한 제반 기반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차세대 교육 목회의 상, 그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1-3)

시편 9편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없이 온전히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나요? 먼저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물리감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주의 앞에서”입니다. 원수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

데 지나고 보니 다윗의 원수들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물러가고 원수가 패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다윗이 나가 싸웠는데 주님께서 적을 물리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은데 지나고 보면 정말 신비하게도 잘 해결돼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때문입니다.

### 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4-8)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만의 지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

까지 변호해주시니.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 “나의 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맺어진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신 그 주님의 의가 이미 나에게 전가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 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9-10)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 10절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을 당할 때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를 한번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 항상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다.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 항상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 목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시9:11-13)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시온, 곧 교회를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펀전은 말하기를 “이 기도의 사다리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하늘까지 다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땅에서 하늘까지 다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공홀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은 “공홀히 여겨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는, “정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곧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 금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시9:13)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 공홀을 구하며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 우리에게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같이 느낄 때, “나를 사

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님”을 찬양하며 공홀을 베푸시기를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공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9:14)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홀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4절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며 왜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는 고백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미주오순절연합 총회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 자
- 4) 목사안수  
1. M.A., M.Div 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2. B.A 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출처: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4. 제출기간

- 1) 제출기간: 2014년 2월 28일 까지

### 5. 기타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봉사 및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5 Net-work 형성 한국- 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1 / 최병상 목사(323)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지난 16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박수영 선교사는 스토니브룩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 Div를 공부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 육군에 복무했으며 그중 3년은 이라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2013년까지는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박 선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으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준비된 선교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사로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박수영 전도사의 간증을 정리해서 게재한다. 퀸즈장로교회는 시애틀 크나 마을에 2층 교육관을 건축하고 2월

말 완공돼 캄보디아 뵈엘교회와 뵈엘유치원을 시작으로 그 지역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적,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게 된다. 박 선교사는 "영어와 현지어로 쓰고, 말하고, 듣기를 가르치고 수학, 과학과 현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예체능(미술, 악기 등), safety(안전) health(위생), 성품교육까지 가르치며 국제학교 수준으로 교육할 예정"이라며 또한 "관광지인 시애틀 지역에서 지역 중고등부아이들이 졸업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어, 한국어 교육을 하는 뵈엘 언어학교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이 진정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더 하 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하게 될 것이라 여기며 손꼽으며 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계획임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원하시는 것은 따로 계 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 당시 왜 그리 크게만 느껴졌는지, 왜 그리 들고 돌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안에 자리 잡았던 내가 너무나 크기에, 나의 교만함과 배쪽한 바 위들을 품은 모습들을 갈고 만지 시기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후 청년의 때, 주의 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2013년 5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으며 성장했던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다니면서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유년부 전도사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다양한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었지만 군대시절 이라크로 파병되어 중동지역의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땅을 밟으며 기도하게 하였고,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아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시애틀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상 된 불교문화, 또 1000년 이상 된 힌두교 문화가 섞여 있는 캄보디아는 대부분 집이나 사업 터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신당 같은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25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7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엄청나며 부정부패는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구의 1/3이 죽임을 당했고 문맹률이 높으며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은 한달 생활비 60-100달러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인 이 지역에서 중학생 나이의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나서며 식당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공립학교에서 오전반/오후반으로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수준과 대우도 형편없고 수업내용도 영대우라 제대로 된 인재들이 길러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시애틀 지역에 흙모래 길에서 누렇게 바랜 색의 옷을 입고 있고 놀거리를 찾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교회에서 사주신 20년 된 자동차를 몰고 지나갈 때 신나게 손을 흔들며주고 맨발로 쫓아오는 친구들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낯이 뜨겁고 TV에서 보았던 한국의 6.25이후의 힘들었던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학교가 세워졌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빈민지역 계몽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 캄보디아 땅에 파송선교사로 교회와 학교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낫고 결손한 모습으로 현지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zizie315@gmail.com

##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선교사 박수영

### 간증수기

저는 불신자가 가정의 사업하는 부모님의 1남2녀 중 장녀이자 둘째로 자랐습니다. 타고난 활발한 기질대로 소란스럽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로 말미암아 서울 개포동에서 좋은 교육 받으며 자랐으나 중학교 때 부모님의 사업이 점차 힘들어져 중학교 2학년 말쯤엔 거의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지하실 방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매일 울며 지낼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 때 가족들의 결정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뉴욕 부르클린에서 살면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 동네 집사님의 전도로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6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던 시기였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기뻛고, 하루하루 새롭고 즐겁고 신나던 날들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3-4번 이상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초신자에 불구하였지만 많이 성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며 집도 이사하고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시들해졌을 무렵 그냥 평범히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싫고 좁은 한인타운 한인교회에서 사는 것도 답답해 미국사회에서 자리 잡고 세계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가서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당당히 서고 명예와 돈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시민권이 없었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받는 예비군으로 우선 지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나름대로 치과의사 장교라는 목표로 공부하고 있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 이라크로 파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4개월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학교 복학을 기다리는 그 6개월의 기간은 너무나 힘들던 날이었습니다. 거칠었고, 괴팍하고, 교만했으며 나를 이해 못하는 가족들도 미웠습니다. 암암히 학교 잘 다니면서 졸업하고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

하면 아직도 공부가 남아있고 연약한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해야 하며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내 자신, 내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질꼬질 볼 한가 비교하며 열등감에 미칠 듯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퀸즈장로교회 여름수련회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렸고, 두 팔 벌리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효과적인 하나님 일이라 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계획임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 원하시는 것은 따로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가렸고,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세워놓은 날 위한 목적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돌아돌아 온 탕자를 그렇게 따뜻이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계속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안에서 차근차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학교를 복학하여 의료선교사를 지원하며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에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

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요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만하게도 베드로와 바울같이 생각되던 내가 왜 요나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의 깨끗함을 알았습니

다.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에 숨겨져 있던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과 돈, 명예에 대한 나의 욕심을 하나님은 꿰뚫어보셨고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하며 반항하던 요나처럼 전 하나님

품게 하셨습니다. 2010년 교역자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가면서 처음 캄보디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후 매년 2주 동안 단기선교로 3차례 캄보디아 땅을 밟으며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해인 2013년 1월부터 졸업 후의 진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중에 국교는 불교지만 종교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 LA 사무소 오픈감사예배

- 일시 / 2014년 2월 20일(목) 오후 5시
- 장소 / 10701 Holder St, Cypress, CA 90630 / YS HEALTH 2F 회의실
- 전화 / 703-473-4696

\* 예배후 저녁 만찬과 교제가 있습니다. \*

초청인 명예이사장 이원상 목사, 이사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노진준, 이종관, 이순근, 최훈석 회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 화환은 사절하며 당일선교헌금은 아프리카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후원합니다.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h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사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훈석 집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태 김사무엘 김세웅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용 안인권 이계준 이병완 이예실 이영선  
 이현혜 임철성 장원일 장재욱 정세훈 조용수 진용태 차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훈련원장 백선진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에스터 코디네이터 노희준 장로 신구용 장로